

돈보다 생명!
행복하려면 녹색당
안전하려면 녹색당



은평구의회의원선거 마 선거구(갈현2동, 구산동)

기호

녹색당

4 박종원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의회 보고서 표절에 비판 여론 확산
은평구의회는 목록부담, 주민들은 감사청구 움직임

특히 전체 연수 후기를 작성해
존 의원이 있어 인터넷에서 보고
자신이 느낀 것과 비슷하게 표현
한 부분을 가져왔다는 달달 공무
원 의원에 대해서는 '황당하
다'는 지적에 덧붙여 '기본적으
로 의원들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
하지 않고, 또 공무원이 작성한
것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횡행한 상황
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3월 24일 '월세 외
민으로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의회가 구의회 의원님을 위해
존재하나요? 아님 주민을 위해
존재하나요?
이제 어림도 없습니다.
아참, 저 박종원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의정 노동자'로, 또 '의정 활동가'로
불리고 싶습니다.

세금으로 의정비 받고 일하는 만큼 지역과 주민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의정노동자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주민 참여의 기회를 만들고, 다양한 지역 자치
활동을 촉진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내는 의정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보다 동네에
뿌리내리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속
다짐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 흑산도 출생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전)KYC(한국청년연합)

서울지부 활동가

■ 전)고무신학교 교사

■ 현)초록길도서관 운영위원

■ 현)은평녹색당 운영위원장

■ 현)은평구의회 해외시찰
주민감사청구 주민모임 대표

구의원 18명(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있는데
2010~2013년 구의원 조례안 발의 단 32건(18%), 2013년 달랑 4건
1년에 구의회 열리는 날은 60여 일, 한 해 연봉 3,858만원,

제대로 출석 안 해도 다 받아

업무추진비 매달 의장 330만원, 부의장 160만원, 상임위원장들 110만원
술집에서 식당에서 업무추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공개도 안해

4년 동안 해마다 해외시찰, 주민 월세는 1억 5,000만원 넘게 사용
결산은 영수증도 없이 대충, 보고서는 감상문 수준, 심지어 표절에 짜깁기도 있어
이렇게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구의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 바꿔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4,307억 예산의 정직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의정노동자가 되려는 박종원의 약속

1. 의정활동 주민 모니터링 실시 및 의견 반영
2. 분기별 의정활동 보고(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4. 해외시찰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5. 해외시찰 결산 세부내역 투명 공개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은평구의회의원선거 마 선거구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 별	생년월일	직 업	학 력	경 력
4	녹색당	박종원	남	1980.10.05 (33세)	어린이청소년 놀이프로그램 기획진행자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현)초록길도서관 운영위원 전)서울KYC (한국청년연합 서울지부) 활동가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7,574	△7,574	—	-고지거부-	—	제2국민역 (장기대기)	—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43	없음	없음	해당없음
후 보 자	243	없음	없음	
배 우 자	—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			

4. 소명서

녹색당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 주민센터 및 주요 장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 길고양이 돌봄 활동가(캣맘, 캣대디) 지원
2013년 강동구 시범 사업 실시 효과
TNR(길고양이 중성화 후 방사) 30% 증가로 개체 수 감소
음식물 쓰레기봉투, 소음 등 길고양이 관련 민원 감소

함께 가꾸는 '골목길 텃밭'
- 골목길 공터를 활용한 자투리 텃밭으로
- 공공건물 옥상, 빈 공간을 동네 공동 텃밭으로

깨끗한 분리수거 '재활용 정거장'
-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개선으로 예산 절감
(2013년 마포구 10억 절감 효과)
- 수거 관리인 선정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골목길 '범죄 예방 디자인'
- 좁은 골목길 범죄 예방 환경 조성
- 안전가로등, 비상안전벨, 안전지킴이 집 설치
마포구 열리동 소금길 예방효과 78.6% 만족도 83.3%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
- 페타이어 재활용 바닥재,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놀이터
- 놀이터 오염 방지 및 주기적 점검과 보수
- 아이들의 상상력과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놀이터

우리 동네를 위한 당신의 제안은
무엇인가요?

마을 재발견 프로젝트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이웃들이 만나고,
지나치기만 했던 동네 맛집을 알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작은 축제가 일상이 되는
골목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 안심, 안녕,
골목길 만들기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설계하고 만들어 가는
골목이어야 합니다.
함께 책임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며,
이웃 간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골목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 걷기 코스
- 동네 골목을 잇는 건강 걷기 코스 조성
- 곳곳에 간편한 운동기구 설치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활정치,
동네의 중요한 일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폭발/ 공포와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 노후된 원전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녹색당



밀양의 눈물/힘없는 국민이 국가의 폭력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3기 폭발,
3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 공포 여전
10만년을 봉인해야 하는 원전 폐기물,
우리가 사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와 밀양의 눈물,

대한민국이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최고, 고리 1호기, 고장...또 고장...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36년 된 노후 원전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
낡은 고리 1, 2호기 폐쇄하면 765kv 밀양송전탑도 필요 없습니다.
핵발전소와 초고압송전탑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마련
 - 방사능 안전 급식 심의위원회 주민참여 보장
 -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및 공공급식까지 확대
- *방사능 기준치는 의학적 안전기준이 아닙니다. 성장기 청소년 특히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음식물을 통한 내부피폭은 치명적입니다.

- 구산동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마을 에너지 교육
 - 주택 단열 개선 및 태양광 발전 지원
 - 우리 동네 에너지 전문가 '에너지 진단사' 양성
- *전기 사용 30% 절감하면 핵발전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 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 학교 및 주택 단열 개선 사업 지원
 - 지역 태양광발전 생산 확대



지금 행복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합니다.

녹색당

어린이와 청소년, 노동자와 장애인이 존중받는 사회,
녹색당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 공동 육아 나눔터

- 아이 놀이터, 엄마 배움터 '영유아 플라자' 확대
- 육아 정보 공유,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구립 어린이집 확대와 노후시설 개선

- 은평구 보육아동 대비 국공립보육시설 서울 최하위
- 갈현2동 신설, 기존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지원

■ 동네마다 시간제 아이 돌봄 센터

- 부모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공간 마련
-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 방과 후 놀이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방과 후 놀이 활동, 지역 특화 프로그램 확대
- 은평구 교육 콘텐츠 사업과 연계 지원

■ 제2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 청소년 문화 활동 거점 지역 갈현동에 설립 추진
- 자립과 자치를 위해 청소년 직접 참여 보장

■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

- 스스로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 청소년 자치·동아리 활동 지원
- 인권·노동·평화·민주 시민 교육 지원

■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은평구 80개 작은도서관을 주민 소통공간으로
-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 노동 인권 조례 제정

-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노동 인권위원회' 설치
- 동 움부즈만 운영, 직업·노동 상담센터 운영

■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

-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
- 기존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인력 지원 예산 확충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며 함께
놀았습니다.

아이들에겐 '놀이'가 밥입니다.

놀면서 관계를 배우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마음껏 노는 것이
최고의 공부입니다.

